

나팔꽃

朱 貞 一

지난 초여름 우리집 담밑에는 심지도 않은 나팔꽃 떡잎들이 무수히 땅을 뚫고 솟아 나왔다. 작년 가을에 떨어 졌던 씨들이 겨울잠을 깨고 싹터 올라온 것이다. 생명의 힘의 신비함에 새삼 미소지으며 나는 여름동안 그들의 한살이를 유심히 지켜 보았다.

며칠후 나팔꽃 가족이 약간 인구 과잉이라 느낀 나는 작고 못생긴 것으로는 골라서 솟아 버리고 실한 놈으로 골라서 담밑에 일렬로 죽 옮겨 심어 놓았다. 자연에 침범하여 손을 댈다는 죄책감에서 남은 놈은 좀 잘 길러 보아야 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 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고 하는 것이 어느 덧 나의 즐거운 일과가 되어 버렸다.

처음 한동안은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초조한 마음에서 매일 드러다 보고 기다렸으나 나팔꽃은 좀처럼 빨리 크지 않았다. 두째잎 세째잎들이 나와도 영 줄기가 뻗어 오르지를 않아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날——씩이 난 후 아마 보름은 지났으리라——마침내 가느다란 줄기들이 뻗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고 나는 거의 소리칠듯 기뻐다. 마침 가까이 있던 막내아들 진호를 불러 그것을 보여 주었다. 마치 재롱 피우는 아기를 보고 같이 볼 사람을 부르는 격이었다. 나는 곧 노끈을 내어다가 나팔꽃이 타고 올라갈 줄을 장만하여 주었다. 나팔꽃은 땅에서 두뼘도 못자랐는데 담에는 온통 노끈 전시회가 벌어진 듯 하였다.

이튿날 아침 우연히 나보다 먼저 마당에 내려간 진호가 「엄마 이리와 이것봐」 하고 소리 쳤다. 「엄마 나팔꽃 나무가 밤에 이렇게 많이 컸어」 나는 일손을 멈추고 마당에 내려 섰다. 나팔꽃순은 과연 놀랄만큼 뻗어 있었다. 그리고 줄을 타고 한바퀴 뱅 감겨져 있었다. 그 후 진호와 나는 몇일을 두고 그 성장 속도의 빠름에 경탄하며 같이 관찰을 계속했다. 물도 주고 풀도 뽑아 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의 머리속에서는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 갔다. 나팔꽃이 처음에는 왜 그다지도 지루하리만치 자라지 않았을까? 그러던 것이 순이 줄을 타고 뻗기 시작하더니 어쩌면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리만큼 초속도로 자랐을까 이러한 현상들을 나는 불현듯 갓난아기 자라는 모습에 견주어 보게 되었다. 아기도 처음 한두주일은 좀처럼 자라지 않는다.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최대의 안간힘이 아기안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 이리라. 그러다가 기델 곳을 찾으려면 즉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항상 곁에 있음을 알게 되면 그 때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성장을 시작한다. 그때의 자라는 힘은 놀라운 것이며 아기는 하루하루 달라진다. 나팔꽃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처음에는 가냘프게 땅위에 솟아 나와 잎을 꼬부린 채 오들 오들 떠는 것만 같더니 한잎 두잎 더해 가며 자라다가 마침내 줄을 발견하고 타기 시작한 후에는 비로소 마음놓고 무럭 무럭 자라 가는듯 하였다.

한창 자랄 때의 잎의 싱싱함과 푸르름은 마치 청년기 남녀의 탐스러움을 방불시키기도 하였다. 저 잎들이 힘을 쌓았다가 머지 않아 꽃피울 준비를 하겠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후 솟아 오르는 아침해를 향하여 방긋 웃으며 피어난 첫꽃을 보았을 때 나는 또 다시 진호를 불렀다. 아니 아이하다 불렀다. 모두 모여서서 그 첫꽃의 선을 보았다.

나팔꽃의 생명은 허무 하리만치 짧다. 피어난지 불과 몇시간만에 시들고 난다.

사람은 몇십년을 살아도 더 살고 싶고 못내 가기를 아쉬워 하는것이 상정이지만 나팔꽃은 뻗적 피었다가 미련없이 스러져 간다. 한번 피면 내할 일은 다했다는듯 청렴하고 욕심없이 보인다. 흡사 「짧되 굵게 살라」고 시사해 주는 것도 같다.

어름도 무르익어 나팔꽃 덩불이 마침내 담과 가시철망을 완전히 뒤덮고 하나의 왕국이라도 이룬듯 벌어 났을 무렵에는 하루에도 수십송이 혹은 백여송이씩 피어나는 나팔꽃이 마당 한모퉁이를 찬란하게 장식 해주었다. 한송이로 말하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나팔꽃이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피니 역시 대견하고 탐스럽다. 우리 배달민족도 그럴 것이 각자가 힘세고 빛나고 잘생긴 체 하려 말고 우리 하나 하나는 약하되 그 약한 힘도 한데 뭉쳐 발휘 하면은 세계 어느 민족 부럽지 않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건설할 수 있으리만 하고 생각 키운다.

가을바람이 일기 시작하니 그 탐스럽던 잎사귀들이 벌써 노랗게 마르기 시작했다. 그 초채함이 마치 황혼에 접어든 노인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나팔꽃은 슬퍼보이지 않는다. 도랑 도랑 무수히 맺인 누런 씨들이 이미 그들 곁에 있으니 온갖 희망을 거기에 걸고 조용히 떨어져 가는 것만 같다. 땅에 떨어져 썩되 썩음으로서 또한 내년에 필 꽃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뻐할는지도 모른다. 여기서도 나는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함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